



쌍용 · 거손배 제 1회 제과동호인 축구대회

총 6개팀 참가 열띤 경쟁 ... 동그라미회 극적인 우승

쌍용 · 거손배 제 1회 제과동호인 축구대회가 지난 3월 27일 독섬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쌍용인테리어와 거손유통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총 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A·B조로 나누어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틈틈이 익혀왔던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열기를 내뿜은 이번 대회에서는 동그라미회가 우승을, 우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글 / 오형석 ohs@mbakery.co.kr〉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만은 상쾌했다. 전날 화창했던 봄 날씨와는 다르게 잔뜩 흐린 가운데 선수단은 오전 10시를 전후해 속속 경기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연속된 일과로 몸과 마음이 모두 피로했겠지만 이날 선수단 일행은 아주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개막 시작 전 삼삼오오 모여 몸을 푸는 선수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생동감이 있었다.

이 대회를 후원한 쌍용인테리어 박운용 대표와 거손유통 손영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전 12시경 개막식이 시작됐다. 감사패 증정과 함께 동그라미회의 조영환씨가 선수단을 대표해 피어플레이를 다짐하는 선서를 시작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경기에 돌입했다.

2개 구장에서 나누어 펼쳐진 예선전에서는 경기 시작 5분 여만에 한우물회와 우심회와의 경기에서 한우물회 수

비수의 자책골이 1호골로 기록되면서 대회는 점점 열기를 띠었다. 풀리그 방식으로 두 개조로 나누어 진행된 예선 경기에서는 A조에서 우심회가 1위를, 한우물회가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B조에서는 동그라미가 1위를, 제과협회 동부지회가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올랐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 속 동그라미회 우승 차지

결승전에 앞서 벌어진 3·4위 전에서는 한우물회가 제과협회 동부지회를 꺾고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벌어진 결승전은 1·2위다운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경기 전부터 우승 후보로 예상되던 우심회와 동그라미간의 전후반전은 말 그대로 용호상박의 대접전이였다. 전후반 격렬한 승부에서도 우열을 가리지 못한 두 팀은 1:1 무승부 상황에서 연장전에 돌입했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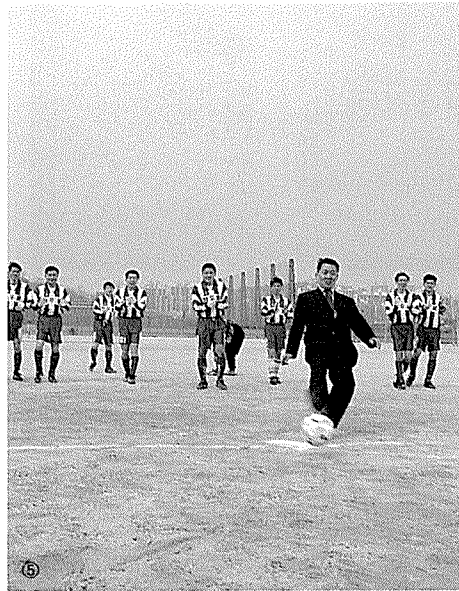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1. 참가 팀 선수들이 입장한 가운데 12시에 거행된 개막식 모습.
2. 한우물회 소속의 유재식씨가 거손유통 손영훈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3. 대회 첫 게임인 한우물회와 우심회 선수들이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4. 휴식시간. 선수들이 전반전 경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5. 쌍용인테리어 박운용대표의 시축 장면.

연장전에서는 동그라미회의 저력이 돋보였다. 지난 해 제과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동그라미회는 이대회 선수의 연장 골든 골로 승부를 마감지었다. 이대회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4골을 기록해 득점왕에 올랐다.

이번 대회 준비부터 진행까지 참여해온 제과협회 동부지회 소속의 이춘길씨는 “평소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제과인들로서는 대회 준비를 틈틈이 해오면서 체력 보강을 비롯해 친목을 쌓는데 좋은 기회를 가졌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회 개최는 물론 전국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년도 축구대회에서 지나친 승부욕으로 대회 진행에 차질을 빚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 대회에서는 심판들의 말끔한 대회 진행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선수들의 페어플레이가 경기마다 속출 돼 한층 성숙해진 경기매너를 보이며 참가자와 관람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참가 선수단

A조 : 우심회, 한우물회, 단심회

B조 : 동그라미회, 제과협회 동부지회, 엠마

■ 입상 팀

• 우승 : 동그라미회

• 준우승 : 우심회

• 3위 : 한우물회

• 4위 : 제과협회 동부지회

• M.V.P : 심순보(동그라미회)

• 득점상 : 이대회(동그라미회) 4골